

식민지 과학 협력을 위한 중립성의 정치: 일제강점기 조선의 향토적 식물 연구

이 정†

“이과의 교사는 자연과학자이기 전에 무엇보다 교육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중한 훈계는 일제강점기 경성중학교 박물과 교사였던 가미타 쓰네히치(上田常一)가 조선인 박물 교사들에게 하고 싶던 이야기였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 십여 년 후의 회고에서까지 이 말을 꺼낸 것을 보면 조선인 교사들이 “이과 교육자이기에 앞서 자연과학자”였던 점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다. 그나마 위안 거리는 이들의 연구열 덕분에 조·일 협력 하에 조선의 자연물이 크게 연구되었고, 이과 교육의 향토화도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조선인, 일본인 박물 교원들 사이의 관계가 “다른 인문이나 사회과의 관계처럼 폐쇄적이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성공 요소라는 것이 그의 자평이었다. 중립적인 자연과학 분야라서 달랐다는 것이다.¹

식민지 조선에서 ‘자연과학자’가 가장 많이 탄생한 분야는 단연 박물학, 그 중에서도 식물학이다. 한국 식물분류학의 태두라 불리는 정태현(鄭台鉉, 1883-1971), 월북 이후 잊혔지만 도쿄제대 출신으로 조선 중부 지방 식물 연구를 이끈 도봉섭(都逢涉, 1904-?), 의욕적 채집 활동으로 “동양 제일의 식물 표본실” 설립을 목표로 했던 장형두(張亨斗, 1906-1949), 일본의 『植物研究雜誌』에까지 성과를 발표했던 박만규(朴萬奎, 1907-1977), 해방 후 고려대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던 이덕봉(李德鳳, 1898-?) 등 상당수의 조선인 학자들이 연구 역량을 발휘했고, 식민지 개발과 교육을 위해 파견된 상당수 일본인들도 조선 식

† 대만 중앙연구원 史語所, jung.km.lee@gmail.com

1 上田常一, “朝鮮の理科教育史概説”, 『朝鮮學報』 (1956), 337-346쪽 중 346쪽.

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문적 인정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들이 참여하고 조직했던 각종 연구 단체와 표본 전람회, 채집회 등은 식물학을 가장 대중적인 근대 학문 활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물론 식물학이라기보다는 박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고, 대개 분류학 분야에 머물렀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와 기반은 식민지 시기 여타 과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²

이 글은 식물학의 이러한 이례적 성공의 비결을 몇몇 뛰어난 학자의 사례가 아닌 연구 단체를 통해 드러나는 집단적 움직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떻게 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다수의 식물학자가 탄생하고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될 수 있었을까? 과연 일본인 교원들이 기억한 대로 이들이 조선인들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갖고 향토적 이과 교육이라는 사명에 충실했던 덕분일까? 또 일본인 교원들과 조선인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했던 것은 과연 자연과학에 고유한 ‘중립성’ 때문이었을까?³

이 글은 식민지 향토 식물 연구의 이례적 성공이 일본인 교원들의 개방성이나 자연과학의 중립성이 아니라 향토적 식물 연구가 갖는 이중의 정치성 덕분임을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 ‘이중의 정치성’이란, 식민 현지의 조선인과 일본인 연구자들이 중심부 과학과 경쟁하며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공히 향토적 식물 연구를 내세우는 넓은 차원의 정치성과, 제국주의의 도구로서 더욱 정치화된 과학 활동을 통해 조·일 각각의 상이한 ‘향토성’을 담은 향토 연구를 탄생시키는, 합의되지 않은 식민 지배를 둘러싼 대립적 정치성을 의미한다. 이 이중의 정치성과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이 글은 향토적 식물 연구를 주창했던 일본인 및 조선인 연구자 단체의 형성 과정 및 교류 양상을 검토하고 그 교류의 목표인 향토적 식물 연구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² 문만용은 박물학이 “이 시기 조선의, 나아가 조선인의 과학연구를 대표하는 분야”라고 잘 지적했다.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1권 2호 (1999), 157-193쪽 중 158쪽.

³ 다음 연구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의 중립성을 내세웠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Sungook Hong, “Korean Scientists Look at Japanese Colonization: The Emergence of an Idea of the Value-Neutrality and Objectivity of Science,” *Historia Scientiarum* 15 (2006), pp. 268-275.

1. 일본인 박물 교원들의 조선 연구열과 조선의 향토 교육 운동

근대 과학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은 신분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근대적 사회 관계와 동시에 등장했다. 근대 제국의 식민지 확장 또한 이러한 기회에 기민하게 반응한 근대적 전문가들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일본의 ‘정착민 식민지(settler colony)’였던 조선에서 이는 몇몇 개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⁴ 조선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던 일본인들이 쉽게 이주를 결심했던 지역이었다. 일본인의 외국 도항 금지가 풀린 1876년 이후 하와이 이민이 개시된 1885년까지 일본인의 최대 이민국은 조선이었고, 강제 병합 당시 조선의 일본인 거주자는 17만으로 일본 해외 거주자 중 최대 규모였다. 조선의 일본인 거주자는 1920년에 35만, 1930년에는 53만으로 늘었다가 만주 사변 등으로 일본의 경기가 상승하던 1931년에는 41만으로 줄기도 했지만, 1942년에는 다시 75만에 달하게 되었다. 하와이나 북미 이민자가 주로 결혼이나 노동 이민이었다면 조선 이민자의 경우는 초기부터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통감부 시기부터는 식민지 지배 기구에서 일할 전문가와 관료의 비중도 높았다. 식민지인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원들도 다수 모집되었다. 1929년 조선의 관공립학교에서 일하던 일본인은 5천 명 가량이었는데, 학교 수가 많은 보통학교의 경우는 일본인 교원이 30% 정도(2412명)에 그쳤지만, 중등 이상의 학교는 그 비중이 높아서 관립의 고등보통학교는 85%, 사범학교 84%, 실업학교 및 각종 보습학교 82%, 전문학교 91%, 경성제대는 82%에 달했다.⁵ 비록 이주한 일본

⁴ 1940년 70만에 가까운 재조선 일본인 중 식민 관료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4분의 1이었다. 인구 5백만인 영국령 케냐의 경우 영국인 식민 관료는 80명, 동화 정책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료를 파견했던 프랑스령 베트남의 경우도 프랑스인 관료의 수는 베트남인 1,700만에 대해 2,920명에 지나지 않았다. Uchida Jun, *Brokers of Empire: Japanese Settler Colonialism in Korea, 1876-194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1), pp. 3, 23. 베트남과의 비교는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p. 11-12. 과학자 집단의 형성과 식민지 확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예를 들면 Fa-ti Fan, *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Harold Cook, *Matters of Exchange: Commerce, Medicine, and Science in the Dutch Golden 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Warwick Anderson, *Colonial Pathologies: American Tropical Medicine, Race, and Hygiene in the Philippin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인 중 상당수가 조선에서 만주로, 대만으로, 다시 일본으로 끊임없이 이주했지만, 많은 수는 조선에서 수십 년 이상을 머물며 삶을 꾸려갔다.

이 절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찾아 조선에 와서 식민지 교육의 핵심층을 이루었던 일본인 식민지 교원들, 그중에서도 뒤떨어진 조선인들에게 과학 문명을 전수한다는 ‘문명화 사명’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현한 일본인 박물 교사들의 조선 동식물에 대한 연구열을 다룬다. “이과 교육자이기 앞서 자연과학자”이고 싶었던 것은 조선인 연구자들만은 아니었다.

조선의 자연물을 연구해서 학문적 성과를 남길 가능성은 낮은 땅에서의 삶을 매력 있게 만드는 요소였다.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 박물 교사들은 이미 통감부 시절부터 일본과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 조선의 동식물에 관심을 기울였고, 1911년 서울 시내 박물 교원을 망라하는 연구 모임을 만들었다. 물론 학교 수가 적어 네 명이 전부인 모임이었지만 장래 박물관 건설을 목표로 “조선 전도(全道)의 동식물·광물을 채집하고 조사”하기 위해 9개년 채집 계획까지 세운 야심찬 모임이었다. 1909년 조선 정부의 초청으로 한성고등학교에 부임했던 모리 타메조(森爲三, 1884-1962), 1910년 한성중학교에 부임했던 도이 히로노부(土居寛暢, 1884-?), 그리고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외국어학교의 박물 교사가 함께했다.⁶ 이들은 팀을 나누어 1911년에는 제주도, 금강산, 통영에서, 1912년에는 지리산, 경상도, 강화도에서, 1913년에는 백두산에서 채집하며 계

5 교원 통계는 일본의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며 ‘민족적’이고 ‘계급적’인 교육을 시도했던 上甲米太郎을 다룬 저술, 新藤東洋男, 『在朝日本人教師：反植民地教育運動の記録』(東京：白石書店, 1981), 29쪽에서 인용. 병합까지의 일본인 조선 이민사는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東京：未來社, 1989). 식민지 시기까지를 포괄하는 이민사는 다카사키 소지, 이규수 옮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 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역사비평사, 2006) 등. 참고로 제일 조선인들은 대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의 공업·탄광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이들이라는 점에서 제2 일본인들과 대조를 이룬다. 인원은 제일 조선인이 제2 일본인보다 더 많았다. 박경숙, “식민지 시기(1910년-1945년) 조선의 인구 동태와 구조”, 『조선연구학』 32 (2009), 29-58쪽.

6 모리 타메조는 1904년 도쿄제대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박물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 1909년 조선에 왔다. 그의 이력은 上田常一, “森爲三先生の追憶”, 『朝鮮學報』(1963), 114-119쪽. 모리 이외의 인물들은 인적 사항에 대한 추적이 힘들다. 도이 히로노부의 경우는 1914년까지는 히라이(平井)라는 성을 썼고, 도쿄고등사범학교를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평양교보(1916-1921), 신의주교보(1922-1928) 교감과 교장을 거친 다음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며 은사기념과학관의 촉탁 연구원을 겸직했다. 조선총독부 직원록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획을 이행해 나갔지만 더 이상 이 채집 활동을 이어나가지는 못했다.⁷

도이의 회고를 보면, 이들의 채집 계획이 중단된 것은 박물과에 대한 총독부 지원금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초기 박물과는 문명화 사명의 핵심 과목이라는 자부심에 걸맞은 지원을 받았다. 도이는 강제 병합 직전 일본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한성중학교에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박물 교실, 준비실, 표본실을 확대할 것 등을 통감부에 건의했다. 조선총독부는 “장차 대학으로까지 만들 계획”을 담은 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 교실 확대는 물론이고 비품들도 일본 중학교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 주어 “교원들은 희망이 충족된 기분”으로 수업을 준비했다고 한다. 독일에서 직수입한 현미경, 현미경 사진기와 마이크로톰이 구비되었고 도서와 표본 구입비도 넉넉해서 절판된 서양서와 귀한 인도 식물지까지 구비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이 박물학이라는 ‘수입 학문’을 얼마나 구미(歐美) 수준에 맞추어 잘 교육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과시할 태세였다. 하지만 이 전시용 지원은 도이의 말을 빌자면 “용두사미”로 끝났다. 기본 시설이 갖추어진 1913년 이후 박물과에 대한 지원은 격감되었고, 이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는 교원들도 나왔다.⁸

하지만 모리 타메조와 도이 히로노부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다. 제국대학이라는 엘리트 코스 대신 사범학교나 제국대학 부설의 교원양성소에서 교육받은 모리와 도이에게는 제국대학 출신자들이 연구 경력을 쌓아가는 일본보다는 조선이 박물 연구자로서 입지를 세우기에 더 좋았을 것이다. 모리 타메조는 학교장의 이해 하에 지속적으로 표본을 채집하여 총독부 관보인 『朝鮮彙報』 등에 조선의 동물, 식물, 광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발히 발표했고, 1920년에는 총독부의 의뢰로 『朝鮮植物名彙』(1922)의 편찬 작업도 맡았다.

사실 조선 식물 연구 분야에는 이미 독보적 영역을 구축한 일본 학자가 있었다. 함방 이전부터 도쿄제대 표본실에 전략적으로 채집된 조선 식물 표본을 연구해온 도쿄제국대학 소속의 나카이 타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이다. 나카이는 1909년과 1911년 펴낸 “Flora Koreana”라는 순 라틴어 논문을 통해

7 土居寛暢, “三昔前の博物教員としての思出”, 『京城博物教員會誌』 1 (1938), 14-22쪽.

8 1913년 도쿄제대의 나카이 타케노신이 총독부의 조선 식물 축탁을 맡게 된 이후로는 적어도 식물 연구를 위해서는 이들의 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학술 연구 예산이 정해져 있었다면 도쿄에서 조선을 오가며 연구를 했던 나카이에 대한 지원금이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土居寛暢, “三昔前の博物教員としての思出”, 16-17쪽.

2천 종에 가까운 조선 식물을 논한 공적으로 1913년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확보했다. 그가 자임하고 총독부가 후원한 목표는 “일본인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것에 더해 학술 방면에도 힘을 쏟고 있음”을 알리는 일로서, 이후 총독부에서 출판된 『朝鮮森林植物編』(1913-1940) 시리즈와 『濟州島嶺莞島植物調査書』(1914), 『智異山植物調査報告書』(1915), 『白頭山植物調査書』(1918), 『金剛山植物調査書』(1918), 『鬱陵島植物調査書』(1919) 등으로 실제 기대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나카이는 특히 빠른 시일 동안 수많은 신종, 신속을 발견하며 조선 식물의 독특성을 밝혔는데, 이 성공은 사실 일본 식물과 유사한 조선 식물을 조선 특산 식물로 밝히려는 그의 의지에 힘입은 바가 컸다. 조선에 와 보지도 않은 채 표본실에 확보된 표본으로부터 미세한 특징까지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과 신속을 만드는 전략이었다. 작은 변이까지 중시해 종을 나누는 극도의 세분론이었는데, 이에 대한 만만찮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라틴어와 영어로 펴내는 나카이의 저작은 연구 성과가 없던 한국 식물에 대한 독보적 성과였고, 세계적 기준일 수밖에 없었다.⁹

총독부가 모리에게 의뢰한 『조선 식물명휘』는 여러 권에 분산된 나카이의 연구 성과를 총정리하는 일종의 색인 작업이었다. 하지만 모리가 작업하고 역시 식물 분류 연구에 관심을 보여온 총독부 임업 기사 이시도야 쓰토무(石戸谷勉, 1891-1958)가 검토한 『조선 식물명휘』는 그 이상을 노렸다. 미약하지만 나카이의 연구에 대한 차별화 노력을 드러낸 것이다. 이시도야는 총독부 임업 시험소의 소장으로서 나카이의 조선 식물 연구를 지원해 왔었는데, 이즈음 나카이의 연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던 참이었다. 도쿄제대의 권위자라고 해도 분류를 하는 기준이 미덥지 않은 데다 자신과 다른 채집자들의 정보에 의존해 우왕좌왕 종과 속의 판정을 달리하면서도 성과는 독차지하는 것이 마땅찮았다. 나카이가 중시하는 미세한 특징은 현장에서는 구별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경우도 많았다.¹⁰

모리는 이 책은 “내가 1909년 한국에 온 이후 수집해 온 식물을 기반으로

9 나카이와 식민지 식물연구 전반에 대해서는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 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 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나카이의 분류 기준에 대한 비판은 장진성, “現代 植物系統 分類體系와 研究傾向에 對하여”, 『식물 분류학회지』 22권 1호 (1992), 33-45쪽; 장진성, “韓國樹木의 目錄과 學名에 對한 再考”, 『식물 분류학회지』 24권 2호 (1994), 95-124쪽 등 참고.

10 이시도야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참고.

완성된 것”이란 말로 서문을 시작했다. 나카이 못지않은 자신의 오랜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 성과만으로 책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카이가 이미 보고한 3천여 종의 식물을 모두 신지 않을 수 없었고, 그를 위해서는 나카이가 확보하고 있는 표본까지 확인해야 했다. 모리는 3만 점에 달하는 도쿄제대의 표본이 자신을 비롯한 많은 조선의 채집자들이 수집해 보낸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나카이의 양해와 도움 하에 그의 도쿄 연구실에서 겨울방학 두 달을 보낸 후에야 책을 완성했다. 모리가 나카이의 전문성을 보인 것은 이시도야와 같은 현지 연구자들의 성과와 여타 일본 자료를 활용해 나카이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식물의 조선명, 조선식 한자명, 서식지와 용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부분이었다. 모리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듯 총독부의 후원으로 2년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출장 연수를 다녀왔고,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개교한 1925년에는 예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는 나카이가 자신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던 식물 분야를 피해 동물 특히 어류 연구로 전환하여 1935년 교토제대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¹¹

한편 1916년 평양고등보통학교로 옮긴 도이는 다시 평양 지역의 일본인 교원들과 공동 연구를 시도했다. 평양 지역의 박물 교원과 농업 교원을 모아 “아메바회”라는 박물 연구회를 만든 것이다. 친목 도모를 겸한 아메바회는 “박물이나 농업과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1918년부터 활동이 저조해지다가 1919년 초에 이르러 흐지부치 되었다. 도이도 1919년부터 조선산 나비류, 도롱뇽류, 도마뱀류, 담수어류 등에 대한 논문을 『朝鮮彙報』와 『朝鮮』에 활발히 발표하며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¹²

조선 동식물에 대한 일본인 박물 교원들의 연구열은 조선 박물 관련 교재의 확보가 교육과 직결될 수 있었기에 연구자로서의 성장만이 아니라 교사 본연의 교육 업무에도 기여했다. 도이는 병합 직후 학교를 방문한 테라우치 총독에게 학생들과 함께 만든 조선 동식물 표본을 보여주었다가 “조선의 것을 가르

11 『朝鮮植物名彙』 원고의 최종 점검은 모리의 출국 일정 때문에 이시도야가 맡았다고 서문에 적시되어 있다. 森爲三, “白頭山の植物分布の大要に就て”, 『朝鮮彙報』 (1916. 12), 151-155쪽; “朝鮮産脊椎動物目録”, 『朝鮮彙報』 (1916. 05), 108-119쪽; “タングステンとチリブテン”, 『朝鮮彙報』 (1916. 05), 101-107쪽.

12 土居寛暢, “今は故きアメバ會”, 『京城博物教員會誌』 2 (1938), 10-16쪽. 居寛暢, “朝鮮産蝶類目録”, 『朝鮮彙報』 (1919. 11), 115-128쪽 등.

치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만 내지의 것도 같이 가르쳐서 비교 연구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의를 받았을 만큼 조선 박물 교재 확보와 이를 이용한 교육에 힘썼다.¹³ 도이와 모리는 점차 조선의 단풍, 진돗개, 나비 등에 대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학무국 산하 교원 단체인 조선교육회의 교육전문지 『文教の朝鮮』에 발표하며 ‘향토 교재’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실 조선 이과 교과서가 향토성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통감부 시기부터였다. 단순히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향토 교육 운동’ 혹은 ‘향토 연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선 교육의 ‘향토화’는 외부의 영향보다 실제 조선에 파견된 일본인 교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박물 교원들의 연구열에 크게 힘입었던 것이 특징이다. 1931년 일본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도 향토 교육이 정책화되자 조선 향토 연구가 지리와 역사, 사회 분야에서는 활발하지 못하고 “박물에 관한 것 중 광물, 동물, 식물 조사에 국한”된 것이 문제시될 정도였다.¹⁴ 일본의 향토 교육 운동은 1880년대 지리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1910년대 니토베 이나조가 제창한 향토 연구를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 1875-1962)가 계승하면서 민속학적 경향도 강해져 조선처럼 박물 분야만 앞서나가지는 않았다.¹⁵ 조선에 있는 일본인 교원들의 조선 박물 연구도 더러 자연물과 관련된 지역의 설화와 민담, 풍속을 아우르면서 민속학적 경향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조선의 자연물이 있었다. 조선의 향토 교육은 일본 운동의 이식이라기보다 박물 교원들의 조선 자연물 연구열이 반영된 자생적 운동에 가까웠다.

예컨대 통감부 이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본 적 없는 희귀한 동식물이 아니라

13 土居寛暢, “三昔前の博物教員としての思出”, 『京城博物教員會誌』 1 (1938), 14-22쪽 중 19쪽.

14 福士末之助, “民風作興上教育的方法としての郷土調査”, 『文教の朝鮮』 (1931), 6-16쪽 중 11-12쪽.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1930년부터 사범학교에 향토 연구 시설비를 보조하면서 향토교육연맹을 발족시켜 이 운동을 관변화했다. 日本科學史學會 編, 『日本科學技術史大系』 第10卷 (東京: 第一法規, 1964), 17-31쪽.

15 『무사도』로 일본적 정수를 서양에 알린 니토베 이나조의 향토 연구 주창과 그의 뜻을 계승한 야나기타 쿠니오의 민속학적 향토 연구, 이와 일본 향토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新渡戸稲造, “地方の研究”, 『隨想錄』 (東京: 實業之日本社, 1907), 269-282쪽; 김용의, “일본의 근대화와 생활문화의 변용—야나기타 쿠니오(柳田國男)의 『명치대정사 세상편(明治大正史 世相篇)』의 고찰을 통하여”, 『조선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는문집』 (2004), 247-250쪽; 伊藤純郎, 『郷土教育運動の研究』 (京都: 思文閣出版, 2008).

처음부터 누에, 뽕, 목면, 차와 담배, 자두, 제비, 다시마, 잉어, 문어, 오징어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동식물들을 수록했다. 물론 조선 이과 교과서의 ‘향토성’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을 통한 교육의 ‘실체화’와 더불어 지식의 도야보다는 ‘순량한’ 노동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식민지 교육 이념과도 연관되었다. 이과 교육은 “천연물 및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특별히 조선의 상황을 고려해 농사·수산·공업·가사” 등에 관련된 실용적 사항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통감부 교과서에 포함된 누에, 뽕, 목면, 차, 담배 등은 쌀과 함께 조선의 전략 산물로 꼽혔던 것들이었다. 1913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보통학교이과서』에서 통감부 교과서에 있던 것 중 삭제된 것은 유채꽃, 나비, 꽃과 벌레, 곤충, 민들레 등이었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유용성이 떨어지는 종류였다.¹⁶

식민지 교육자들은 구미 교과서를 번역한 흔적이 많았던 일본의 이과 교과서에 비해서 조선의 교과서가 더 ‘향토화’ 되어 있다고 자부했다. 총독부 편수관을 지냈던 이시무라 토시오(岩村俊雄)의 자평에 따르면 조선 교과서는 “조선에 보통 있는 자연물을 수록했기 때문에 내지의 이과서에 비하면 조선 교과서로 한층 지방화”되어 있었다.¹⁷ 이는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가 1931년 편찬한 『초등이과서』는 특히 일본 향토 교육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조선 박물 교육을 향토화의 표본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평가는 1938년 일본의 한 이과 교육자가 펴낸 최초의 이과 교육사에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했는데, 전후 일본과학사학회의 일본 과학교육사에서도 추인되었다.¹⁸ 이들은 조선의 이과 교과서가 단순한 관찰과 사실의 주입이 아닌 종합적 사고력을 진작시

16 이과교과서 내용의 검토는 송민영, “조선총독부시대의 종합적인 이과교육이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고찰”, 『教育學研究』 41 (2003), 117-146쪽 중 125쪽. 통감부 시기 교과서는 학부에서 펴낸 것만 아니라, 유성준과 김상천이 펴낸 『新撰小博物學』(同文館, 1907)도 향토화를 주장했다. “본서에 기재한 바 동식광물은 우리의 항상 보고 들어 알기 쉬우며 또한 실험을 행하기 용이하고 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 썼다”는 것이다. 허재영 엮음, 『통감시대 교과서 자료-8 박물』(광명: 경진, 2011), viii쪽. 조선인들의 교과서와 통감부 교과서의 관계는 더 검토할 만하다.

17 岩村俊雄, “普通學校に於ける理科教授法”, 『文教の朝鮮』(1925), 55-60쪽 중 55-56쪽.

18 일본 과학교육사에서 조선, 만주 등의 교과서들이 더 진보적이었다는 평가는 일반적이었다. 식민지 교육에 대한 호평은 일본 교육에 대한 비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화되거나 과장되기도 했을 것이다. 神戸伊三郎, 『日本理科教育發達史』(東京: 啓文社, 1938); 『日本科學技術史大系』 제10권, 24-25쪽.

키는 “진보적인 향토화”의 사례라고 평가하며 일본에서는 입학 시험의 기준이 되는 문부성 국정 교과서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조선의 일본인 박물 교원들은 전문적인 식물학자나 동물학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조선 박물을 연구해서 향토 연구에 기여하고 이과 교재를 지역화함으로써 박물 교육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2. 식물 채집과 식민지 민족주의: 조선인 박물 연구자의 형성

두 차례 연구팀을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도이의 사례는 일본인 박물 교원들이 조선 박물을 함께 연구할 동료를 쉽게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박물 교원들의 연구를 도운 이들은 주로 동식물 채집에 흥미를 보이며 그들의 방과 후와 주말 채집에 따라 나섰고, 방학 숙제로 곤충과 식물을 채집해온 학생들이었다. 일본인 교원들은 주로 일본인들이 다니는 관립학교에 근무했음에도 소수인 조선인 학생 중에서 채집과 연구에 열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만났다. 조선인 학생들이 고된 채집을 자청하면서 박물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나,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 박물 교원이 된 데는 각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히 식민지 조선인 사회의 근대적 과학 활동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 속에 ‘채집’이라는 낯선 활동을 수용했다.

제국주의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던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인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강한 염원을 드러냈다. 개항 이래 과학을 직접 배우거나 연구한 층은 드물었어도, 민족의 생존과 발전이라는 근대적 목표를 위해 과학기술을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 “권선징악하는 도를 유행하게” 한다는 전통적 목표와 함께 문명의 증진을 추구한 『한성순보』(1884-1885)는 청나라에서 발간되던 『격치휘편(格致彙編)』을 참고하여 과학 기사를 대폭 실었고, 병합 1년 후 폐간된 최남선의 『소년』(1908-1911)도 소년들을 위한 과학 정보를 민족 계몽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기술과 그에 연결된 물질 문명이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쪽에서도 그 도구적 유용성은 인정하자는 동도서기의 논리가 대세를 이루었다.¹⁹

19 朴星來, “開化期の 科學受容”, 『韓國史學』 1 (1980), 251-268쪽; 조형래, “『소년』의 과학”, 『사이』 6 (2009), 273-302쪽; 『한성순보』의 창간사 인용은 노대환, “1880년대 문명

1920년 ‘문화 통치’ 하에 창간된 한글 신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나 우 후죽순처럼 나왔다가 검열이나 운영난에 빠져 사라지곤 하던 잡지들도 과학에 대한 비슷한 관심과 열망을 드러냈다. 신문의 학예면 등에 과학 기사의 비중이 적었다면 그것은 관심의 부족보다 필자의 부족을 반영했다.²⁰ 1927년 『동아일보』는 사육 신축을 기념하여 분야별로 조선인의 성취를 기리고자 했는데, 아직 조선인의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과학기술 분야도 네 분야 중 하나로 정했다. 민족의 이익을 증대시킬 분야라는 것이 선정의 변이었다. 활발하게 움직이던 민간 교육이나 사회 사업 부문에 비해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던 자연과학자와 발명가가 포함된 점은 이 분야의 성과에 대한 동아일보 측의 소망을 반영했을 것인데,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²¹ 선정 위원들은 이 분야의 저조함이 “물질문명이 조선에 수입된 시일이 오래지 아니하고 사위(四圍)의 사정이 우리의 현재를 발휘하기에 자유로운 기회를 주지 아니한 탓이려니와 그렇다고 신흥 조선의 현상으로는 결코 남부끄럽지 아니 할 정도”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상황이 이러했기에 열망은 더욱 컸던 듯하다.²²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한 안재홍은 1929년 『삼천리』 창간호의 일성으로 과학 분야에서 “조선인의 세계적 권위”를 높일 “유수한 세계적 학자”의 탄생을 소망했다.²³ 이러한 열망은

개념의 수용과 문명론의 전개”, 『韓國文化』 49 (2010), 221-248쪽 중 230쪽. 동도서기론에 대한 노대환의 다음 책을 보면 과학기술을 단순한 도구로만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문명의 핵심으로 받아들이는 지향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대환, 『동도서기론 형성 과정 연구』 (일지사, 2005).

²⁰ 1922년 11월에는 “상대성의 물리적 이해”라는 요즘 신문에서라면 오히려 보기 힘들 기사가 4회 연재되고 있기도 하다. 이혜령, “특집 1: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에서 문학과 매체의 역할과 성격: 1920년대 『동아일보』 학예면의 형성과정과 문학의 위치”, 『대동문화연구』 52권 (2005), 95-133쪽.

²¹ 동아일보가 간절히 찾은 것은 세계적 연구 성과나 발명품이 아닌 단지 이공계 대학의 학위 수여자와 특허가 등록된 발명가일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수는 극히 적어 과학자 5명, 발명가 9명에 불과했다. 자연과학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5명은 모두 의학이었다. “本社落成紀念消息//姓名은 紀念號에 삼십일부터 기념호에 써넣을 발표, 내력과 소제등은 순차로 계속 런제, 履歷紹介도 繼續連載, 民間教育者 自然科學者及發明家 社會事業家 本報保管者들의 동아일보-사육낙성기념·행사”, 『동아일보』, 1927. 4. 24; “自然科學者及 發明家”, 『동아일보』, 1927. 5. 3.

²² “朝鮮의 자랑 斯界의 重鎮; 本社落成紀念事業의 一功勞者 芳名: 民間教育界/ 社會事業界/ 各種發明界/ 自然科學界”, 『동아일보』, 1927. 4. 30.

²³ 안재홍, “세계에 向하여, 朝鮮에 큰 科學者가 나서 世界的으로 進出하자”, 『삼천리』 1 (1929. 6), 5쪽.

1930년대 ‘과학 조선’ 운동이라는 조직적 형태로 표출되어 1934년에는 과학지식보급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²⁴ 식민지인들은 과학을 제국주의의 이념적, 실질적 도구라고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과학기술의 획득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동아일보』의 시도에서 드러났듯 식민지 민족주의가 추구했던 과학기술의 획득은 조선인에게는 멀고 낮은 목표였다. 하지만 식물 연구, 그 중에서도 채집 여행과 표본 만들기, 표본 관람을 포함한 조선 식물상 연구는 조선인들이 직접 주관하여 전시까지 열 수 있는 예외적 과학 활동이었다.²⁵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접근이 쉽다는 점만이 장점은 아니었다. 식물 채집과 표본 만들기가 전통 학문과 갖는 뚜렷한 차별성은 그 근대성을 입증했기에, 근대 과학의 정신을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지되었다. 자연물을 자연 상태에서 분리시켜 일정한 공간에 표본으로 만들어 수집한 뒤 그 ‘객관적’ 특성을 “관찰, 분류, 설명”하거나 전시하는 활동은 조선인들에게 확실히 낯설었다.²⁶ 일찍부터 서양 식물학자들과 접촉하며 석엽(腊葉) 표본 제작 기술을 발달시킨 일본과 달리 중국과 조선에는 이런 자연물 표본이 유행한 적이 없었다.²⁷ 일본이 서구에 못지않은 일본의 과학 문명을 과시하려 마련한 한성중학교의 표본실, 박물관이나 총독부가 조직하고 개최한 각종 박람회, 은사기념과학관에 전시된 자연물 표본들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이러한 문화적 차별성을 전시하는 것이었다.²⁸ 하지만

24 조선 과학 운동의 다양한 이념과 의의에 대해서는 임종태, “김용관의 발명학회와 1930년대 과학운동”, 『한국과학사학회지』 17권 2호 (1995), 89-133쪽; Jung Lee, “Invention without Science: ‘Korean Edisons’ and the Changing Understanding of Technology in Colonial Korea,” *Technology and Culture* 54:4 (2013), pp. 782-814.

25 각종 박물관 관련 전시회와 그에 대한 조선 사회의 기대어린 관심은 김성원, “식민지시기 조선인 박물관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회지』 30권 2호 (2008), 353-382쪽 중 370-375쪽에서도 볼 수 있다.

26 일본 유학생 단체 태극학회를 주도했던 장응진은 과학의 핵심적 조건으로 “관찰, 분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장응진, “과학론”, 『태극학보』 (1906), 9-12쪽 중 10쪽.

27 Paula Findlen, *Possessing Nature: Museums, Collecting, and Scientific Culture in Early Modern Ital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핀들렌은 표본을 만들고 소유하는 문화를 통해 유럽에서 근대 자연사가 발달했음을 지적했는데, 엘만은 동시대 중국 자연사 전통을 논하며 중국과 유럽 자연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렇게 표본을 소유하는 문화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Benjamin A. Elman,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28 차문성, 『근대 박물관 그 형성과 변천 과정』 (한국학술정보, 2008).

이 낮은 문화는 육체적 활동을 천시하던 그때까지의 생각을 바꾸어 산과 들로 채집 도구를 들고 나설 의지만 있다면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었다.²⁹

식민지인들이 채집 활동과 표본 수집에 걸었던 기대는 몇 가지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조선어 신문의 식물 혹은 곤충 채집 장려, 각 급 학교의 표본실 마련 노력, 개별 채집자들의 연구용 표본 기증 등이다. 이 모든 움직임은 사실상 일본이 제공하는 과학 교육 및 연구 기회가 부족함을 비판하고, 그 부족함을 메우려는 조선인들의 노력으로서, 일본인 교원들의 가르침이나 각종 박람회에서 선전된 ‘문명화’의 구호에 대한 순응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 논자는 박람회 등을 통한 문명 교육이 조선의 실질적 문명화를 꾀하기보다는 “조선 사람의 흉거리”는 다 모으고, 일본 문명의 휘황찬란한 것을 다 내세워 조선인의 열등함을 내면화시키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런 전시에 몰려다니며 감탄하는 일은 일본이 기대한 “멍텅구리 헛물켜기”였다.³⁰ 채집열은 제국의 문명에 경탄만 하는 대신 무엇이랄도 직접 해 보자는 움직임이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과학 교육이 일본 본토의 것보다 낫다는 앞서의 진단에 거의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앞서의 가미타도 식민지 과학 교육의 실상은 교과서의 ‘진보성’을 따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지원이 부족해 표본실도 실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 훈련받은 교원조차 부족한 식민지의 상황을 교과서의 향토화 정도로는 메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³¹ 대중 매체를 통한 채집 장려는 열악한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방편으로 제시되었다. “시험을 위하여 암송하였던 과학적 원리나 수학적 공리까지도 교문을 나서는 날에 그 교과서로 더불어 벽장속에 집어너케 되는 상태”라면 식민지 아동들에게 과학에 대한 “취미와 지식욕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³² 조선 식물을 직

29 이와 유사하게 중국 지질학자들은 현장 조사를 중국 전통의 허학적 요소에 대한 반성적 활동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Grace Yen Shen, “Taking to the Field: Geological Fieldwork and National Identity in Republican China,” *Osiris* 24 (2009), pp. 231–252.

30 春坡, “서울구경 왔다가 니저머리고 가는 것”, 『별건곤』 (1929. 9), 129–131쪽 중 129–130쪽.

31 上田常一, “朝鮮の理科教育史概説”. 1922년 개정 교육령 이전까지 조선의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한 차별화된 학제는 1941년의 국민학교령 이후에야 통합되었다. 식민지 시기 일본과 조선의 과학 교육에 대한 비교는 “法令에 들어난 日本의 朝鮮人教育의 宗旨”,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7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2010)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2 “科學教育改善의 必要, 教育者 諸氏에게 사설(社説)”, 『동아일보』, 1924. 1. 9.

집 채집하고 공부하는 일은 조선의 자연에 대한 사랑을 기르고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학생 스스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하게 할 도구였다.³³ “과학의 지식을 줌에 있어서 반드시 문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물 등에 대한 지식을 자연물에 의하여 얻게” 하자는 주장은 1930년대에 더욱 커졌다.³⁴

채집이나 표본에 대한 조선인의 관심은 초·중등학교에 표본실을 마련하려는 노력에서도 드러났다. 예를 들면 1921년 휘문고보의 민영회는 학교 확장을 위한 자금 8만 원 중 1만 원을 “리화학표본” 설비에 투자했고, 민립 경성도서관에 마련한 아동도서관에도 생리 해부, 동식물 표본 그림과 무선 전신, 증기차 표본 등을 구비했음을 홍보했다.³⁵ 표본실의 유무는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였다. 동맹 휴학에 들어간 한 학교의 학생들은 표본실의 불비를 교육부실의 중요한 증거로 들었고, 황해도의 한 학교는 표본을 마련해 6년제 보통학교 승격 운동을 할 계획을 밝혔다.³⁶

표본의 가치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믿음은 개인이 수년간 노력해 모은 표본을 기증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초등학교 표본실 마련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이미 발달한 상업적 표본 거래에 주로 의존했다면, 전문학교에 기증된 표본들은 조선 땅에서 조선인들이 직접 모은 “귀중한 표본”을 직접 연구하자는 움직임이었다. 민족 의식과 채집의 연관을 뚜렷이 드러내는 취지였다. 경성식물회 창립을 주도했던 장형두는 1933년 10년의 노고와 2만여 원의 비용을 들여 채집했다

33 이덕봉, “학교 구내식물 이야기”, 『배화』 2 (1926), 95-110쪽.

34 “兒童科學敎授의 敎育的價値(李栢主)”, 『동아일보』, 1932. 2. 4; “내 고장의 생물을 모아 보는 기쁨과 자랑 기회 좋다! 오늘은 일요일”, 『동아일보』, 1933. 5. 28; “몸에도 좋고 공부에도 유조한 취미의 야외식물 채집 (상)”, 『동아일보』, 1933. 5. 27; “봄의 산과 들에 나는 아름다운 식물의 채집”, 『동아일보』, 1935. 4. 21.

35 “敎文高普大擴張, 칠만원을 드려 교실을 짓고 일만원으로 표본을 설비해, 校主 閔泳徽氏의 大奮發”, 『동아일보』, 1921. 6. 23; “無線電信을 爲始하여 各種 標本을 備置하고 자미 잇는 중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도록 힘쓰는 아동실, 오전에는 강습을 식일터이다”, 『동아일보』, 1923. 9. 2.

36 “義明學生盟休, 敎師中에는 缺點이 만코 器具標本은 不備하다(肅川)”, 『동아일보』, 1924. 6. 25; “岐陽校의 新計劃, 博物標本購入(沙里院) 기양학교”, 『동아일보』, 1925. 8. 26. 표본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몸을 생리 표본으로 기증하려는 움직임도 낳았다. 비록 총독부의 제재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오산학교를 세운 교육 운동가 이승훈은 자신의 몸을 표본으로 만들어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故南岡李昇薰先生 遺骸는 다시 定州로, 標本製作은 當局이 不許, 二日夜 京城을 出發”, 『동아일보』, 1930. 11. 4.

는 조선 식물 표본 7천 점을 연희전문학교에 기증했다. 3년 안에 연전에 “동양 제일의 식물표본실”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일본을 능가하자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표본이 “우리 조선에서는 물론이요 전 동양에서 별로 얻어 보기 어려운 진귀한 조선의 보물”이라고 소개했다.³⁷ 숭의전문학교도 “순조선 고유의 곤충으로 총 가격 1천 2백 원에” 이르는 곤충 표본 858점을 연구와 전시용으로 기증받았다.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한 “청년과학자”의 선행이었다.³⁸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심과 사교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조선인의 손으로 조선의 자연을 연구하자는 움직임은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 과학 활동에 한 번도 종사해 본 적이 없던 문화 엘리트들의 주도로 진행되던 이 운동에 점차 스스로의 채집기를 실을 수 있고 조선 동·식물의 특징 및 연구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조선인 박물 연구자들이 가세했다. 특히 식물학 분야는 농림업의 중요성, 약재 개발의 가능성 덕분에 수원농림학교, 총독부의 임업시험장, 경성제대 약리학교실,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생약연구실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더 많은 연구자를 배출했다. 문화 통치 이래 초등학교 입시 경쟁을 낳을 정도로 확대된 조선인들의 교육열에 부응해 식민지 초·중등 교육 기반이 점차 확충된 것도 중요했다.³⁹ 박물에 국한되다시피 한 식민지 과학 교육 덕분에 다른 과학 분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박물 분야에는 연구를 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마련되었다. 초등 교원이 아닌 중등 박물 교원이 되는 길은 고등사범학교가 없는 식민지에서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상당수는 그 길을 찾아냈다.⁴⁰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식민지 최고의 과학 분야 엘리트가

37 장형두는 도쿄원예학교에서 공부했고 마키노 토미타로(牧野富太郎)를 사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장형두는 해방 후 서울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 당시 “사소한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고문사 했다. 朴萬奎, “全羅南道 植物相의 概觀”, 『식물 분류학회지』 1권 (1969), 9-12쪽 중 9쪽. “朝鮮未記錄の植物新種を發見”, 『경성일보』, 1932. 7. 1; “二萬圓의 巨費와 十個年의 積功, 植物標本 七千餘種 光州”, 『동아일보』, 1933. 1. 21; “延專植物標本 整理完了”, 『동아일보』, 1933. 11. 28.

38 “숨은 靑年科學者 崇專에 昆蟲標本 寄贈, 八백五十八점을 연구재료로 同校에선 方今 整頓中”, 『동아일보』, 1934. 4. 10.

39 근대 교육 제도의 형성을 위한 조선인들의 주체적 노력에 주목한 오성철은 근대 교육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요구가 확대되는 배경을 단지 민족적 실력 양성론만이 아닌 상향적 사회이동 혹은 ‘생존 전략’이라는 개인적 동기 등을 통해서도 드러냈다.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40 중등 박물 교원이 되는 다양한 경로는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2장 4절 참고.

식물학 분야에서 형성된 것이다.

3. 교류의 허실: 조일 공통 단체의 '일본적' 향토화

앞서 보았듯 일본인 박물 교원들만의 조직화에 실패하고 개인적 연구 성과를 쌓는 데 관심을 기울였던 모리와 도이는 1923년 결성된 조선박물학회에 적극 참가했다. 조선박물학회는 도쿄제대 지질과를 졸업하고 총독부 지질조사소의 기사로 있던 가와사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郎, 1878-?)와 도쿄제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기사타도 연구소에서 기생충을 연구했던 총독부 의원의 고바야시 하루지로(小林晴治郎, 1884-1969) 등 총독부 소속 전문가들이 주도해 조직했다. 가와사키가 조선박물학회의 초대 회장, 고바야시가 부회장을 맡았고, 박물 교원으로 일하다 총독부 편수관이 되었던 예의 이시무라가 간사직 하나를 맡았으며, 총독부 학무국장, 식산국장, 의원장, 이왕직 차관이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조선박물학회 창립 회원수는 명예 회원을 합해 129명이었는데, 절반 정도는 전국의 교원들이었다.⁴¹ 당시 박물 교원이던 모리와 도이도 바로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시도야도 가입해 모두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동물, 식물, 광물에 관련된 총독부 관료와 교원들을 망라한 단체가 탄생된 것이다. 이들은 1924년부터 『조선박물학회잡지』를 통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활발히 발표하기 시작했다.

조선박물학회는 처음부터 조선인 박물 연구자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조선박물학회는 아마추어를 배제하여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보다는 박물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에 관심을 보였다. 회원들을 위한 월례회 이외에도 대중을 위한 강연과 표본 전람회 등을 열어 대중에게 박물학을 알렸고, 자격조건 없이 회원도 공개적으로 모집했다.⁴² 덕분에 박물학회 회원은 꾸준히 늘어나 1926년에 174명, 1938년 308명이 되었고, 이 중 조선인은

41 회원 명부의 소속기관 참고.

42 회원이 되고자 하면 이름과 주소, 직업을 기재해 1년치 회비와 함께 보내면 되었다. “斯界の有志를 網羅하여 博物學會를 創立, 각 전문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수 교육가 전부 참가하여 박물학회”, 『동아일보』, 1923. 10. 18. “博物通俗講演, 朝鮮博物學會總會 박물학회”, 『동아일보』, 1927. 10. 22; “博物學講習會(시흥) 박물학”, 『동아일보』, 1931. 10. 14; 『조선박물학회잡지』, “회무보고”.

1926년 21명, 1938년 43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

박물 연구에 대한 관심을 키우던 조선인들은 대부분 박물학회 가입을 크게 주저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이들과 교류하던 일본인들의 권유도 있었던 듯한데, 모리의 조수였던 조복성이나 임업시험소에서 이시도야와 함께 일한 정태현 등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채집 여행을 함께 가 줄 조수가 없어서 애를 먹던 모리가 도이의 소개로 조복성을 조수로 삼게 되어 안도한 것처럼, 이들 일본인 ‘스승’들은 조선인 연구자들을 자신들의 연구 활동에 필요로 했다.⁴³ 임업시험장의 고원(雇員)으로 이시도야의 조림 일을 돕다가 1913년부터 나카이의 조수 직을 맡아 식물 분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총독부 기수(技手) 정태현도, 대부분의 박물 교원들도 가입했다.⁴⁴ 『조선박물학회잡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조선인은 7명이었는데, 이들의 열성으로 인해 전체 논문의 10% 이상은 조선인의 논문이 차지했다.⁴⁵ 박물학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키워 온 조선인들이 문을 두드릴 수 있고, 강연과 논문 출판 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었다.

조선 박물 연구를 위한 단체를 꿈꿨던 일본인 박물 교원들은 박물학회 활동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1935년 이들은 경성박물교원회라는 자신들만의 단체 결성에 나서게 된다.⁴⁶ 박물 교원들은 숙명여고보에서 열린 박물 연구 교원 지도회 자리에서 당시 시학관(視學官)으로 있던 이시무라의 발의에 응해 조직 결성에 나섰다. 향토 박물 교재와 교수법을 함께 연구하자는 취지였고, 강연을 위해 참가했던 모리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모리는 더 이상 박물 교원은 아니었지만, “박물 교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라는 찬사에 걸맞게 이들의 활동을 열성적으로 이끌었다. 이시무라, 도이, 가미타 등도 적극적 활동을 보였다.⁴⁷

43 모리, 도이, 조복성의 관계는 관정 조복성박사 기념사업회, 『조복성 곤충채집여행기』 (고려대학교출판부, 1975), 30-31쪽, 38-39쪽, 44-51쪽 참고.

44 정태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4장 참고.

45 이병훈·김진태, “西洋 近代 生物學의 國內 導入에 관한 연구: 동물분류학을 중심으로”,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10 (1994), 85-95쪽은 『조선박물학회잡지』 논문에 대한 주제별, 유형별, 저자별 분석을 제공한다.

46 1934년 2월 창립된 경성식물회(1935년 3월 조선 식물연구회로 개칭)등 다른 단체들의 결성도 시도되었다. 이덕봉, “최근세조선 식물학연구사”, 16-17쪽; 『한국현대문화사대계』, 168쪽. 정영호, 『한국식물분류학개설』 등 참고.

47 上田常一, “京城博物教員會活動史”, 『京城博物教員會誌』 1, (1938), 5-13쪽. 회지의 편

경기도 관내의 박물관 교원이 참가했던 연구 교원 지도회에는 다소간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닌 배화여고보, 이화여고보, 배재, 양정, 보성, 휘문 등 사립 중등학교의 조선인 교원들도 참여했는데, 이들도 모두 박물관 교원회에 가입했고, 결성 당시 조선인 교원수는 32명으로 35명인 일본인 교원과 거의 대등했다. 회원의 변동 상황으로 볼 때 가입에 강제성은 없었고, 조선인들은 총회, 강연회, 연구회, 채집회 모두에 활발한 참여를 보였다.⁴⁸ 조선의 박물관을 더 연구하고, 그 향토적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의 박물관 교육을 향토화시키고 향상시키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목표에 대해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합의를 이룬 듯 보이는 향토 식물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들이 중시한 식물 연구의 향토화는 무엇을 뜻했을까?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같은 단체를 만들어 활발히 교류하는 듯 보이던 조선인과 일본인 박물관 연구자들이 막상 향토 연구를 위한 공동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향토 박물관지 혹은 교재가 제작된 지역은 함경북도,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황해도, 인천, 광주, 목포, 전라남도, 부산, 경상남도 등이 있었는데, 경성박물관교원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서울과 경기에서는 한 일본인 교사가 수작업한 원고가 남아있을 뿐이고, 그 외에 남아있는 경상남도의 『경상남도 향토연구—박물관』(1934)과 전라남도의 『전라남도식물』(1940) 두 편은 모두 일본인 교원들만의 작품이다.⁴⁹

이 두 향토 식물지는 연구 방식이나 주체가 서로 다르지만 일본인 교원들의 향토 식물 연구의 공통점도 잘 드러난다. 우선 『경상남도 향토연구—박물관』은

집 후기 등을 보면 모리, 도이, 이시무라, 가미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다.

⁴⁸ 이를테면 1936년 11월 이화여고보에서 열린 2회 총회는 이덕상이 학생들과 수집해 만든 표본실을 견학시켜 “남자학교에 비교해도 훌륭”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上田常一, “京城博物教員會活動史”, 10쪽; 『京城博物教員會誌』 I-IV, 회원명단, 회무보고 등. 『경성박물관교원회지』는 1938년부터 발행되어 1940년의 IV호까지 있다. 회원 수는 거의 67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인사 이동에 따른 변동이 보인다. 『경성박물관교원회지』에 글을 쓴 17명 중 조선인은 석주명 한 사람 밖에 없었다.

⁴⁹ 서지 사항이 남아있는 다른 지방의 향토지를 보면 함경북도교육회, 황해도교육회, 인천교육회 등의 지역 교육회가 주도한 경우와 청진 천마소학교와 광주소학교, 부산제2소학교 등 지역의 관공립 초등학교가 주체가 된 사례가 있으며 학교 내의 동호회가 담당한 경우도 있었다. 역시 교육회가 개입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우를 생각할 때 이 향토지들도 일본교원 중심이었을 것이다.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教育の指針”, 『文教の朝鮮』(1940), 38-56, 47쪽. 수작업 원고는 宮川類吉, 『朝鮮野外植物圖鑑』(京城: 京城櫻井公立小學校理科研究部, 1928). 모리와 이시도야의 도움을 받았다고 서문에 적시되어 있다.

경상남도교육회가 주관해서 관립 부산중학교의 교사들이 펴낸 것으로 동물/식물/광물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경상남도 특히 부산은 일본이 가장 먼저 거류민 지역을 형성한 곳으로 병합 당시 이미 일본인 2만 3천9백 명이 거주해서 부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1944년에는 6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⁵⁰ 이 거류민 자제들을 위한 관립 부산중학교의 일본인 교원들은 우선 당시 교과서를 검토해 교과서 수록 박물의 향토화 정도를 검토하고 이들을 향토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추가적 내용을 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가미타의 주장대로 교육자다운 목표였다.

경남의 향토 연구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당시 교과서가 향토화된 정도이다. 특히 식물부를 보면 이들은 소학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교과서에서 찾아낸 식물을 바탕으로 145과 338종을 선정해 이들 식물의 “향토적 의의”를 새로 밝혔는데, 이 300여 종은 모두 조선, 그 중에서도 경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식물들의 향토적 의의를 놀랍게도 일본에서 출판된 참고 도서만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 조선 특산 식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발견하려고 애쓰던 나카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식물의 태반은 일본 식물과 같았고, 이 경남 식물들은 일본에서도 흔한 일본 식물이기도 했다. 일본인 교원들이 내세웠던 교재의 지방화는 일본에서 맘껏 하지 못했던 교재의 지방화를 우선 조선에서 하되, 일본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해 둔 셈이었다. 일본 자료를 참고해 이들이 밝힌 국화, 나팔꽃, 달맞이꽃과 같은 식물의 향토적 의의 역시 일본 문화의 소개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교과서에 없었던 식물 중 자단(紫檀)과 풍란(風蘭)처럼 일본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식물들을 추가해 실으면서 향토 연구의 일본적 색채를 더욱 뚜렷이 했다.⁵¹

『전라남도 식물』의 경우는 결국 “개인 사정”으로 빠졌지만 장형두가 속해있던 광주 지역 교원들의 식물 동호회에서 1931년 시작되었다가, 이시무라와 모리가 적극 참여하면서 도 교육회 후원 하의 장기적 연구로 탈바꿈했다. 이들은 도내 3백여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여름 식물 100점과 가을 식물 100점, 함께

50 부산의 일본인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지만, 전체 인구 중 일본인 비율은 1914년 50%를 넘었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1930년대 초반까지 3분의 1정도를 유지했고, 1940년대에는 5분의 1정도였다.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역사와 경계』 51권 (2004), 43-73쪽.

51 뚜렷한 일본적 색채를 보이는 사례는 경상남도교육회, 『郷土研究 博物』 (釜山: 경상남도교육회, 1934), 서문 등. 12-13, 21-22, 141, 145, 149, 192, 196-7쪽 등.

200점 이상의 식물을 석엽 표본으로 만들어 송부할 것을 명했다. 양으로는 도쿄제대의 표본에 맞먹을 6만 3천 점의 표본이 도 학무과에 수집된 것은 1938년인데, 이에 동호회원들이 제주도 등지에서 수집한 표본이 더해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표본들에 대한 검토와 자료의 정리가 완료된 것은 1939년, 출판은 1940년이였다.⁵²

이시무라와 모리가 모두 서문을 썼는데, 이들은 상당한 자원과 인력이 동원된 작업의 향토 교육 상의 가치를 당연히 언급했지만 무엇보다 그 학술적 의의를 역설하려 애썼다. 전라남도가 “식물 분포에 관하여 반도의 특수적 지위에 있고 귀중한 재료가 아주 많아서 그것들을 수집 편찬하는 것은 본도의 정치와 교육상 극히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학계에 공헌하는 바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 이시무라의 설명이었고, 모리는 이번 연구가 신종을 찾지는 못했지만 “분포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진귀한 식물”의 소재를 밝혀 “학술상으로도 다대한 공헌”을 했다고 자평했다.⁵³

전라남도 식물지는 나카이와 같은 중심부 학자가 조선 식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선 식물 연구를 하고자 하는 현지 연구자들의 모색을 보여주는데, 가장 놀라운 점은 이들이 조선 식물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문헌인 나카이의 문헌을 모두 참고 문헌 목록에서 제외한 사실이었다. 나카이의 분류학적 성과를 그대로 수용했음에도, 자신들의 학술적 연구를 나카이의 연구와 다른 차원에 위치시키려는 듯 했다. 나카이의 분류 방식을 그대로 따른 1,939종의 전라남도 식물의 총목록보다 이들의 노력이 더 들어간 부분은 따라서 식용, 약용, 관상용 등으로 나누어 별도로 제시한 목록들인데, 이들은 식물의 생장 환경, 도내 분포에 더해 ‘민간 지식’까지 내세웠다. 식물의 “이용후생” 방면에 대한 자신들만의 향토적 전문성을 과시하는 듯했다.⁵⁴

다만 전라남도 거주 일본인 교원들이 제시한 민간 지식은 전라남도 혹은 조선의 민간 지식은 아니었다. 이들이 “전라남도 지방에서 민간약으로 사용되는 주된 야생 및 재배식물”로 소개한 2백여 종의 식물은 물론 전라남도에 자생하

52 全羅南道教育會, 『全羅南道植物』(京城: 全羅南道教育會, 1940), 광주공립중학교 宮田今太郎가 쓴 서언에 소개되어있다.

53 全羅南道教育會, 『全羅南道植物』.

54 실수로 나카이의 문헌을 모두 빼뜨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全羅南道教育會, 『全羅南道植物』, 서언. 경상남도 향토 연구가 비메埔이었던 데 비해 이 340쪽짜리 책은 정가 10원으로 판매도 예상했던 것이다.

거나 재배되는 식물이었지만, 이들이 소개한 민간 지식은 대부분 한 일본인 민간약 연구자의 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이들은 다양한 민간의 처방을 소개하며 약재 용량으로 척관법을 쓴 이유가, 조선에서 아직 “초근목피에 척관법을 쓰고 있어서”라고 밝혔지만, 이들의 처방은 조선인들의 처방이 아니었다. 민간 처방 연구자답게 미터법을 따르지 않은 일본 책의 내용 그대로였을 뿐이다.⁵⁵

사실 전라남도 향토 식물 연구에는 식물의 조선어 명칭조차 없었다. 조선인들의 민간 요법을 조사할 기본 정보조차 없었던 것이다. 장기간의 식민지 생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인 교원들은 조선어를 배우지 않았다. 조선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특권적이고 일본적인 생활 양식을 유지하는 편이 나아서였을 것이다.⁵⁶ 박물 교원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조선인 교원들과 함께 채집을 가거나,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있는 것은 예외적 개방성이긴 했지만, 일본인 교원들의 실제 향토 식물 연구에는 그 개방성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난다. 이들의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작은 일본’에 불과했고, 조선인과의 조선 문화와의 융화될 수 없었던 대다수 일본인 교원들이 자랑한 조선 식물 연구의 향토화는 결국 조선 식물 연구의 ‘일본화’였을 뿐이었다.

4. 향토 식물 연구의 정치성

물론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장기적 공동 작업에 조선인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향토 연구를 ‘일본적’ 연구로 만드는 것은 자연스런 문화적 차이의 반영일 수 있다. 일본인이 아니어도, 식민 지배자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족’ 혹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애착을 보인다. 하지만 일본 교원들의 향토 식물 연구에서 나타난 이들의 태도와 목표는 과연 생활 공간/수준이나 문화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뿐이었을까? 이들이 기억한 대로 이들의 연구는 중립적

55 『전라남도식물』, 219-227쪽. 이들이 집중적으로 참고한 책은 丸山房雄, 『科學的説明を加へたる民間藥及其利用法』(東京: 上田印刷所出版部, 1925). 마루야마 후사오는 민간약에 대한 내용을 일본 유수의 잡지에 기고하며 그 집대성을 노렸던 연구자였다.

56 조선인들을 ‘동화’시켜 특권을 잃을 것에 대한 일본인 정착민들의 우려는 Todd A. Henry, *Assimilating Seoul: Japanese Rule and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in Colonial Korea, 1910-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에서도 볼 수 있다.

인 자연과학 분야라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른 조선인들의 작업과도 적어도 병존은 가능했던 것일까?

사실 일본인 연구자 중 일부는 자신들의 목표를 ‘일본화’와 차별화된 ‘조선화’로 내세우기도 했다. 박물 교원들의 개방성을 자랑했던 가미타는 성공적 ‘향토화’의 사례로 일본 이과 교육계의 부러움을 샀던 1931년 『신이과교과서』마저도 향토화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교과서를 베낀 것이 아님은 분명했지만 자신이 전공하는 해양 생물 부분을 사례로 그는 “조선에 있는 학생은 내지의 생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조선의 생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더 향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향토 연구를 진전시켜 1934년에는 산후에 미역을 먹는 풍습과 연평도 조기와 임경업 장군의 이야기까지 곁들인 교재의 향토화 방안을 선보였다.⁵⁷

모리 역시 “조선의 자연은 내지의 자연과 다르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는 조선적으로 지방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고 그런 점에서 조선 박물 교육과 일본 박물 교육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본 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였다. 그는 “종래 우리나라[일본] 박물교육”은 “구미의존주의”라고 평했다. 구미 교과서에서 베낀 그림이 상당히 많으며 “특히 독일류의 학적 계통에 구애된 것”이 많다는 진단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대학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압축해 간이화한 것에 지나지 않고, 교재도 “보통 세계 각지의 진귀한 박물 교재”에만 관심을 쏟는다는 이야기였다. 중등학교에서 고가인 스컹크, 개미핥기, 나무늘보, 펭귄 등의 표본은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할 뿐 “생도의 실제 생활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일본의 박물 교육은 실제화되고 향토화된 조선의 교육과 달랐다.⁵⁸

이렇게 일본과 다른 향토적 교육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했다. 경성 박물교원회는 1939년,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제기했던 박물 연구/교육 기반 확대에 대한 요구를 조직적으로 제기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국과 식민 정부가 모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57 上田常一, “新理科書の教材の解説 家畜”, 『文教の朝鮮』 (1931), 65-75쪽; “新理科書卷二にある朝鮮の重要な海生産物に就いて”, 『朝鮮の教育研究』 5 (1932), 103-112쪽; “第五講朝鮮に於ける「理科郷土教育」の實際”, 『朝鮮の教育研究』 (1934), 62-65쪽. 藤井求馬의 다음 글은 1931년 신이과서에 대한 종합적 소개이다. 藤井求馬, “新理科書に就て”, 『朝鮮の教育研究』 (1931), 52-58쪽.

58 森爲三, “中等學校博物教材に對する所感”, 『京城博物教員會誌』 3 (1939), 1-2쪽 중 2쪽.

상황에 발맞춘 것이었다. 박물관위원회는 일본인 교사만이 아니라 조선인 회원인 이덕상, 맹원영도 이 작업에 동원했다. 조선 박물관 교육계의 원로라 할 수 있는 도이 역시 『경성박물관위원회지』를 통해 박물관 교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도이는 “교원이 아무리 노력가고 연구가라고 해도, 학교 책임자가 학과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비를 주지 않아 설비가 심히 불비하면 아무래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간단한 모형이나 표본처럼 교원이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현미경 같은 장비나 복잡한 모형 등은 교원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물관 교육에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박물관 교실, 박물관 준비실, 박물관 표본실, 박물관 진열 연구실, 표본·모형류, 기계·기구류, 식물원 및 수서 생물 양식장, 온실, 축사 및 농원, 참고 도서 및 교원용 배도, 소모품비, 여비 및 연구비를 들었다. 그가 식민지에 부임하면서부터 꿈꿔온 대학 수준의 연구 환경이었다. 박물관 위원회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덕상 등의 “박물관교육설비조사서”는 도이의 목록을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최소의 박물관 설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산출했는데, 온실이나 박물관 같은 “일반 설비” 비용을 제외한 한 학교당 예산은 8,448.25엔이었다.⁵⁹ 적어도 교원 100명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액수였다.

별도로 진행된 향토 연구에서 보듯 박물관 교원들을 지리, 역사 등의 인문 분야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의 개방성이 아니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박물관 교원들만의 특징은 바로 연구 여건 확보를 위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였다. 이런 조직적 노력 덕분에 박물관 교원들은 과학 교육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전시에 총독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다. 총독부는 1940년에는 경성박물관위원회가 조선박물관위원회로 확장하도록 지원하며 박물관위원회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인 교원들은 활발하게 움직일 단체가 필요했고, 조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선인들의 존재는 중요했다. 일본인 연구자들의 ‘앞선’ 지식을 배우려던 조선인들이 이들에게 의존한 만큼이나, 일본인 연구자들도 제국이나 식민 당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지 연구 기반의 확대를 위해 조선인 연구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독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한 전시의 박물관위원회는 조선인과의 협력이 박

59 土居寛暢, “博物小言”, 『京城博物教員會誌』 3 (1939), 3-7쪽; 京城博物教員會, “博物教育設備調査書”, 『文教の朝鮮』 (1939), 69-81쪽.

물학의 중립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뚜렷이 드러내게 된다. 노골적으로 정치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차적 정치성은 일본과 차별화시키기도 했던 ‘조선’이라는 향토를 확실히 일본의 일부, 동아(東亞)의 일부로서 제시하는 데서 드러났다. 모리에 따르면 이제 “반도 박물관교육자”의 대사명(大使命)은 조선이 “동아의 반도”에 위치했음을 인지하고 “동아의 발전에 일대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의 교과서로 특화하더라도 “조선의 물적 자원에 관계있는 재료는 물론 만주나 지나 등 동아의 물적 자원에 관계있는 재료도 삼입”해야 했고, “중등학교의 박물관 교재는 무엇보다 일본적인 것”, “일본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풍토에 맞는 특색 있는 것”이어야 했다. 이 일본은 물론 팽창하는 제국 일본을 뜻했다.⁶⁰ 조선의 교원들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향토화가 일본화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이유를 뚜렷이 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인 박물관 교원들은 이 일본 제국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성을 더욱 뚜렷이 했다. 조선인은 열등한 “제2의 국민”이라는 명시였다. 모리는 “산업의 기초가 될 이과 중 특히 박물관 교육의 임무에 우리의 책임이 중대한 것을 자각하고 황군(皇軍)과 같은 큰 긴장으로 제2의 국민을 우리나라의 발전에 맞도록 진실로 이과적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박물관 교원 회원들을 독려했다.⁶¹ 가미타는 이 제2의 국민이 뜻하는 바를 자연의 법칙을 통해 부연했다. 우선 “생물계를 일관하는 작은 교훈”에 따르면 전체가 있어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분은 전체를 위해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조선인은 “제2의 국민”이지만 일본을 위해 “제1의 국민”과 같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생물계의 또 다른 교훈은 “일체가 되려면 그 부분들 사이에 극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하나의 생명체로 기능하지 못하기에 어떤 부분은 손으로의 역할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된 평등관에 입각한 내선일체”를 운위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었다. 그는 “이 생물계를 관통하는 법칙”이 알려주는 교훈을 정부가 과학 교육을 진흥함에 있어서 물리나 화학보다 박물관의 일부인 생물학을 더 중시해야 할 이유로 제시했다.⁶² 지원 확보 및 확대라는

60 모리의 개인적 이해관계도 무관하지 않았다. 같은 호에 모리가 최근 펴낸 동물과 식물 교과서가 선전되어 있었다.

61 森爲三, “發刊の辭”, 『京城博物教員會誌』 2 (1938), 1-3쪽.

62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教育の指針”, 38, 44-45쪽. 이렇게 도덕적 교훈과 자연 현상을 연결시키는 관점은 1892년의 ‘教育勅語’ 이후 일본 이과 교육을 보수화시킨

목표는 변함이 없었지만, 전시 지원의 효과를 맞본 일본인 교원들은 이제 조선인들과의 불편한 동거 대신 자신들의 지배자적 위치에 걸맞는 새로운 근거를 찾았다. “제2의 국민”을 영원히 “제2의 국민”으로 두기 위한 이율배반적 문명화를 이끄는, 자신들이 처음부터 자임했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길이었다.⁶³

‘문명화’란 한 쪽의 우위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모순적 과제라는 점에 대해 조선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단 1940년 정도를 기점으로 박물관위원회의 조·일 협력에는 변화가 보인다. 이시무라가 1940년 설치하고자 한 “이과설비 조사위원회”에는 그 전 해 “박물관교육설비조사서” 작성에 참가했던 조선인 사립학교 교원들이 빠졌다. 8명의 위원은 모두 일본인 교원이었다. 1940년 조선박물관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경성박물관위원회의 회원도 총 인원은 67명 그대로인 반면, 조선인 회원은 대폭 줄어 17명만 남았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본인들이 배제해서였던 조선인들이 참여 의지를 잃어서였던 다수의 조선인 교원들은 교원회 활동에 흥미를 잃었고, 이들의 참여가 없는 교원회도 활력을 잃었다.⁶⁴

앞서도 지적했듯, 일본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이며 이들의 과학을 배우려했던 조선인 연구자들 역시 과학의 중립성을 방패삼아 일본인들을 도와가며 과학 활동에 나섰지만, 문명화 수사의 핵심인 과학의 정치성에 무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일본인들이 유지해온 거리를 분명히 인식했다. 배화여고의 박물관 교사로 박물관학회와 교원회 모두에서 활동했던 이덕봉은 일본 학자들의 “독무대”인 박물관학회 “공무니”를 수년 따라다니던 어느 날 문득 “멋쩍은 생각”이 들어 조선인들만의 연구회를 만들게 되었다고 회고했다.⁶⁵ 조선박물관학회는 조선인 회원들의 이러한 독립적인 움직임을 견제했다고 하는데, 단체 결성을 주도했던 이덕봉과 이회재는 이런 상황 탓인지 합류를 꺼린 임업시험장의 정태현을 수석 회나 찾아 설득했다. 이들은 정태현을 필두로 하고 도쿄제대에서 약학을 공부하고 사립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교수로 갓 부임한 도봉섭과 다수 박물관 교원들을 망라하여 1933년 조선박물관연구회 식물부를 탄생시켰다.⁶⁶

주범으로 이야기되던 것이었다. 이 영향이 1945년 종전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평가였다. 가미타는 조선에는 이러한 보수적 세력의 영향이 없어서 진보적 이과 교육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 회고했지만, 그 스스로가 전쟁 중에 이렇게 일본 보수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63 上田常一, “科學振興に伴ふ小學校理科教育の指針”, 42쪽.

64 회원 변동은 『조선박물관 교원회지』 IV. 1940년 4권으로 『박물관원회지』도 마감된다.

65 이덕봉, “원로 과학기술자의 증언,” 『과학과 기술』 12권 10호 (1979), 32-37쪽 중 34쪽.

조선인 연구자들이 별도의 조선인 단체를 조직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던 우선적 과제는 조선 생물의 조선 이름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이었다. 조선인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달 것도 없이 쉽게 그 필요성에 공감한 듯 했는데 정태현은 채집을 시작한 초기부터 식물의 방언명을 모아왔고, 이덕봉도 일찍부터 꿈꿔온 일이었다.

인왕산은 뒤뜰 되고 사직단은 앞뜰 되어 뒤뜰에는 자연생태 그대로의 고산식물원을 만들고 앞뜰에는 조선산 식물을 모아다가 식물건본원을 설치하는 한편 암전한 온실을 세워 교수와 연구에 필요한 열대식물을 재배하고 참한 못을 하나 파고 어류를 기르니 부유생물이 저절로 번식하게 된다. 밭을 1내지 2.5보 가량 만들어서는 식물의 유전진화학적 실험을 하고 하기 휴가면 조선산야를 편답하여 식물채집과 조선명칭 수집에 힘쓰어 조선명으로 식물목록과 식물도감을 편찬하다가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에 놀라 깨니 남가일몽.⁶⁷

일본 경찰은 이렇게 식물의 조선 명칭을 찾겠다는 조선인들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보였다. “내선일체로 일본과 조선이 한 나라”인데 식물의 조선 이름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다. 정태현은 아직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여 경찰의 심문을 무마시켰다고 회고했다.⁶⁸ 정태현이 자신들의 답을 “변명”으로 기억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작업에는 경찰이 용인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정치적’ 의의가 있었다는 것이다.⁶⁹ 고유 언어와 문화가 위협받는 식민지 상황에서는 일본 연구를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도 심각한 정치적 저항일 수 있었던 셈이고, 이러한 작업에 대한 당국의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조선인 연구자들도 그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운 셈이다.

박물연구회 식물부는 이 단순한 과제를 꽤 힘든 경로를 택해 수행했다. 이들은 나카이가 밝혀놓은 조선 식물에 자신들이 아는 조선 이름을 붙이거나 새로

66 정태현은 해방 후에도 수원고농 동창회 회장 등을 맡곤 했는데, 이휘재, 이덕봉 등은 정태현의 까마득한 후배이다.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霞隱生物學賞：二十五周年』 (서울: 하은생물학상위원회, 1994), 53-100쪽. 도봉섭에 대해서는 이정, “식물 연구는 민족적 과제?: 일제 강점기 조선인 식물학자 도봉섭의 조선 식물 연구,” 『역사와 문화』 25권 (2013), 39-73쪽 참고.

67 이덕봉, “학교 구내식물 이야기”, 110쪽.

68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81쪽.

69 이들의 활동은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결상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만드는 편한 길 대신, 3년간 100여 차례의 모임을 가지며 전혀 다른 차원의 작업을 시도했다. 조선 식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조선인들이 협력해 직접 다시 생산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3년간 대개는 도봉섭의 계농생약 연구소에 모여 작업했는데, 정태현이 나카이에게 표본을 보낼 때마다 임업시험장에 남겨두었던 표본과 각자가 모아온 표본, 각종 참고 자료가 바탕이 되었다. 이들은 나카이 분류의 방법론을 습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특성이 파악된 식물들의 조선 이름을 정했는데, 이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을 택했다. 이미 쓰이던 조선 이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조선 시대의 저작만이 아니라 고려 시대의 향약 연구서들까지 검토했고, 문헌에서 찾지 못한 경우만 몇 가지 원칙하에 이름을 함께 붙였다. 덕분에 이들은 거의 10여 명의 작업자가 3년간 협력하고도 나카이가 그때까지 밝혀놓은 3,600종의 절반 정도에 대해서밖에 작업을 완수하지 못했다. 1937년 출판된 『조선 식물향명집』은 이 절반에 대한 보고서였다.⁷⁰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지식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일본의 성과에 한글 이름만 붙인 것을 자신들의 저작으로 포장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써, 조선을 일본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나라, “일국”으로 언급한 도봉섭이 특히 다듬어온 의지였다. 나카이의 저작에 토를 단 듯 보일 수밖에 없는 작업이지만, 나카이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조선인이 직접 한 것만 조선의 성과로 쌓아가겠다는 것이었다. ‘중립적’ 과학 지식에서는 일본의 연구와 차이를 낼 수 없다 라도 조선인이 직접 수행했기에 일본의 연구와 다른 조선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일견 소박한 인식이었다.⁷¹

70 이들이 참고한 문헌은 『향약재집월령』, 『향약본초』, 『동의보감』, 『산림경제』, 『방약합편』, 『제중신편』 등과 중국 명청과의 대조 점검을 위한 김정준의 『譯語類解』(1690)와 발행 사항을 찾을 수 없는 『詩經物名淸解』 등이다. 박물연구회 동물부는 “조선적 생물학”을 주장했던 석주명이 참가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동물학 분야가 식물학 분야에 비해 이러한 연구 기반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 인원도 적었던 점을 동물부 작업이 실패한 이유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글에 대한 석주명 등의 관심과 나중의 작업을 생각하면, 개개 학자들의 노력, 혹은 민족 의식 보다 사회적 연구 기반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차이로 보인다. 정태현·도봉섭·이덕봉·이회재, 『朝鮮植物郷名集』(京城: 朝鮮博物研究會, 1937), 서문, 범례 등. 참고 문헌에 대해서는 이덕봉,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 『한글』 5 (1937), 312-315쪽 참조. 석주명의 “조선적 생물학”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참조.

71 도봉섭의 ‘민족적’ 기획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정, “식물 연구는 민족적 과제?” 참고.

사실 『조선 식물항명집』은 식민지 상황이 이들의 학문 활동에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들이 정답으로 믿고 있는 나카이의 세분적 분류가 고스란히 계승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조선의 전통과 갖는 관계 또한 미묘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전통 지식과 현대 지식의 연결 고리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곧 전통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다. 정태현의 서문은 조선의 전통이 “풍부한 식물을 직접간접으로 이용하며 완상하며 음영(吟詠)은” 하였으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밝힌 것은 “전무”하였다는 자괴감을 보였다. 자신들은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 최초로 “과학적” 연구에 도전한 선구자였다. 서구와 비서구를 나누고,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비서구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보는 근대적 문명·역사 의식의 소산이었다.⁷²

하지만, 조선인 연구자들은 이 공동 작업 이후 점점 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선인들의 힘만으로도 연구가 가능함을 경험하자 자신감을 얻은 듯했다. 특히 도봉섭과 정태현은 각각 초본편과 목본편을 맡아 조선 식물에 대한 도감 작업에 착수했다.⁷³ 1914년 펴낸 대중적 저작을 제외하면 나카이도 아직 하지 못한 작업이었다. 정태현은 조선박물연구회의 후원 하에 1943년 『조선삼림식물도설』로 그 성과를 펴냈다. 물론 정태현의 분류학적 입장이 미세한 차이도 중시하는 나카이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음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이 저작에서 정태현은 미세한 차이들을 근거로 몇몇 신종을 보고했는데, 모두 그 차이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래의 종에 통합되거나 한 단계 낮은 변종으로 조정되었다.⁷⁴

이러한 당연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태현의 분류학적 태도는 나카이의 것과

⁷²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한 동·서 문명 인식, 근대적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Michael Adas, *Machines as the Measure of Men: Science, Technology, Ideologies of Western Domi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프라센지트 두아라, 문명기·손승희 옮김,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근대 중국의 새로운 해석』 (삼인, 2004) 등 참고.

⁷³ 도봉섭의 초본편도 해방 무렵 원고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월북 이후 펴낸 북한의 저작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나카이나 이시도야 등이 정태현과 도봉섭 등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자립적 연구자로서의 성장은 일본인들과의 협력에서 흔히 강요되는 의존적 경험으로만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의 협력 관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4-5장 등 참고.

⁷⁴ 이는 후대 분류학자들이 이 저작이 분류학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된다. 이우철, “하은 정태현 박사 전기”, 84-85쪽. 더 상세한 논의는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6장 4절 참고.

는 분명히 달랐다. 같이 조림 작업을 했던 이시도야의 영향도 컸는데, 정태현은 도쿄제대의 연구실에서 석엽 표본을 절대시하며 작업했던 나카이와 달리 식물의 성장 환경과 식물 변이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태현은 이미 1926년 자신의 분류학적 능력의 검증을 시도했는데, 바로 맹산맹강나무라는 신종의 명명이었다. 물론 라틴어를 몰라서 나카이에게 대신 보고해 줄 것을 부탁해야 했지만, 정태현은 신종의 확인을 위해 맹산맹강나무의 특징이 서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임업시험장에서 재배 실험을 거친 후에야 신종의 등록을 요청했다. 환경이 달라져도 유지되는 변이만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나카이가 분류해 놓은 식물 중 100여 종에 대해 이견을 표명했다. 나카이가 지적한 특성이 자신의 오랜 현장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나카이의 학명을 이명(異名)으로 처리하고 원래 학명을 대표명으로 한 것이다. 세분적 경향을 공유하기에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의 분류학자로서 나카이와 차별화된 입장을 뚜렷이 확립시킨 것이었다.⁷⁵

이에 더해 정태현은 양묘와 조림이라는 자신의 이용후생적 목표를 강조했다. 나카이의 책은 주로 표본 상의 형태 묘사에 치중한 반면, 정태현은 현장 작업자들에게 중요한 나무 전체의 형태, 나무의 서식 환경 등을 적시했고, 개화기와 결실기, 조림 용도(사방림, 방수림, 방풍림, 풍치림 등) 등도 기록했다. 그리고 나무의 수직 분포 한계와 수평 분포를 밝혔다. 이 도감은 쪽을 아래위로 나누어 위쪽에 그림을, 아래쪽에 설명을 기재했는데, 두 장에 나뉘어 한 눈에 보이도록 삽입된 네 그림 중 셋은 각각의 식물이었지만, 네 번째는 바로 이 세 식물의 조선 내 분포를 기호로 표시한 지도였다. 각 지역별로 조림에 적합한 나무를 찾도록 한 것이다.

정태현은 이에 더해 자신의 도감에 조선 식물의 조선 이름을 최대한 많이 기록했다. 『향명집』 작업을 통해 이미 시도했던 일이지만, 조선 식물에 대한 표준 명칭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향명집』은 사실 한 식물의 다양한 방언명, 다양한 한자 표기법을 신지 못했다. 『향명집』의 대표 명칭만으로는 실제 전통 문헌을 검색하거나 지방의 민간 지식을 조사하는 데 부족했다면, 정태현

75 전후에 펴낸 나카이의 저작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정태현, 『朝鮮森林植物圖說』; Takenoshin Nakai,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Tokyo: The National Science Museum, 1952). 상세한 내용은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6장 4절 참고.

은 때에 따라 열 개가 넘는 식물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이러한 작업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조선인들 사이의 협력의 결과 탄생한 ‘조선인’ 연구자의 ‘조선적’ 식물 연구는 이렇게 일본인들의 향토적 연구와 그 내용에서 점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5. 결론: 종립성의 정치성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은 과학기술의 획득을 염원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실제로 유학길에 올랐던 조선인 중에서 전통적으로 경시되던 과학기술을 택했던 사람은 분명 소수였다. 일본은 조선의 문명화를 조선 강점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선인이 “제2의 국민”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한해 조선인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을 어렵게 했다. 대학 수준의 이공학부는 1941년 전시 상황해야 생겼을 뿐이다. 그나마 식민지 주요 산업인 농림업을 위시해 광공업, 약학, 의학 등의 전문학교가 생겨났고, 연희전문학교에 수물과가 있었지만 소수인 이들 학교의 조선인 졸업생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이었다.⁷⁶

다시 말해 제국에 의한 문명화라 일컬을 만한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식민지 과학계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근대적 과학 연구 활동의 토착화가 일어난 분야가 바로 식물학이었다. 박사는 물론 학사 연구자조차 도봉섭을 포함해 손에 꼽았지만 조선인 연구자들이 낸 성과는 만만치 않았다. 일본 ‘문명화’의 상징이랄 수 있는 나카이의 성과는 사실 제국 과학자로서 자신의 성과를 고수하려는 과도한 권위주의로 분류상의 오류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으니, 그보다 못할 것 없는 성과였다.⁷⁷ 물론 라틴어와 영어 같은 세계 학

⁷⁶ 이는 김근배의 체계적 연구가 잘 밝히고 논의한 바이다.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 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2005). 연전 수물과에 대해서는 전찬미, “식민지시기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의 설립과 과학 교육”, 『한국과학사학회지』 32권 1호 (2010), 43-68쪽 참고.

⁷⁷ 나카이는 1952년 정태현이 1943년 지적한 것은 물론 많은 학자들이 무수히 지적해온 그의 분류상의 오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를 펴냈다. “1932-1942년 사이의 일본의 만·몽(滿蒙) 지배는 외국인들에게 극히 인기가 없었지만, 이 지배 [기간] 동안 일본은 전체적 군벌과 산적의 치하에 있던 이 땅을 평화로운 만주국 혹은 정의가 지배하는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식의 식민 지배에 대한 소회를 담은 이 책의 편찬에 대해 일본학자들조차 아쉬움을 표했다고 한다. Nakai, *Korean Flora*, p.

계에 인정받을 수 있는 도구를 획득하지 못했기에 그러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해방 후의 학문과 산업 발전에 오히려 유용할 수 있었다.

조선인 연구자들이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식민 현지에서 생겨난 박물 연구 붐 덕분이다. 식민지에서의 삶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해 보려는 일본인들의 조선 동식물 연구열이, 채집이라는 낯선 활동을 적극 수용해 이들 일본인 교원들과 같은 자연과학자가 되고, 그리고 조선의 과학 문명을 직접 만들어보려던 조선인들의 열망과 만났던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두 집단의 만남이 일본 연구자들로부터 새 학문을 배우려던 조선인 연구자들의 필요만큼이나, 이들의 도움 없이는 낯선 땅에서의 연구도, 그 연구 기반의 확대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본인 연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추동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 두 집단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 문명화 사명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제국과 식민지 정부를 함께 설득해서 식민 현지에 자신들이 꿈꾸는 연구 기반을 만들려던 조건부 동지였다. 식민지 교원들의 존경을 받는 어엿한 과학자 모리는 이들 모두의 목표였던 셈이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하에 이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존재하던 사회적 격리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했고, 이를 위해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과학의 중립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인식했고, 자신들의 과학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만큼의 개방성을 가질 수 없었다. 두 집단의 연구 결과는 같을 수 없었고, 이들이 내세운 ‘향토’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 머물지 않는 정치적 차이임도 분명해져 갔다. 일본인 교원에게 조선은 제2의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제국 전체에 기여해야 할 제국의 열등한 일부였다면, 조선인 연구자들에게 조선은 일본인들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일국”이었다.

과학의 ‘중립성’이라는 주장은, 어쩌면 예술의 ‘중립성’, 문학의 ‘중립성’과 같은 주장이 예술 혹은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키는 것일 수 없듯, 과학에 내재한 어떤 특성일 수는 없다. 하지만 유난히 과학 활동에 대해 이 주장이 더 자주 반복되어온 이유는 제국주의의 확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간 근대 과학의 태생적 정치성 때문이 아닐까 한다.⁷⁸

152. 이덕봉, “원로 과학기술자의 증언”, 36쪽.

⁷⁸ 제국주의의 이념적, 실질적 도구로서의 과학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는 무수히 많다. 식물학 분야의 대표저작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Lucile H. Brockway, *Science and Colonial Expan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Richard H. Drayton, *Nature's Govern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Londa L.

식민지 조선 식물 연구자들의 협력적 향토 식물 연구는 이러한 근대 과학의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도, 대립하기도 하는 두 차원의 정치성이 다양하게 뒤얹히는 과정이었다. 일차적 정치성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실질적 도구로서의 정치성이다. 제국주의 상황 하에서 참여했던 이런 정치성은 새로운 학문이 주는 재미에 의해서든 제국의 팽창 혹은 식민지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잘 살기 위해서든 과학 활동을 삶의 방편으로 삼으려던 연구자들에게 기회이자 부담이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치적 목표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지원을 더 쉽게 확보할 수도 있었지만, 식민 현지의 불리한 연구 환경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대 집단과의 교류가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었다. 이들은 정치성이 엄연한 식민지 과학 연구의 정치성을 드러내는 대신 그 중립성을 내세우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를 통해, 과학의 중립성은 더 그럴듯한 이야기로 생명력을 얻었고, 이들이 근대적 사회 관계 속에서 중립적 전문가로서 자신들을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바로 이 점에 이들의 향토 연구가 갖는 광범위한 정치성이 있다. 제국과 식민지의 기민한 개인들이 근대 사회의 중추가 되는 전문가 집단을 형성해 나가며 사회 또한 재편시켜 나가는 거대한 정치성이다.

이 거대한 정치성은 무엇보다 권력, 물품, 자원의 전 지구적인 재편이 허용하고 요구하는 ‘근대적 삶’을 향한 개개인들의 움직임이 추동한 것으로, 이미 식민 지배와 무관하게 생겨나 식민 지배를 가능하게도 하고, 그에 대한 저항의 힘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⁷⁹ 식민지 향토 식물 연구에서 잘 드러났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20세기 초반 한반도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를 합의받지 못한 권력의 의도 혹은 그 효율성이 부정된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연결시키고자 애쓰는 일의 허술함은 잘 드러나리라 생각한다.⁸⁰ 역사의 복잡한 움직임은 분명 식

Schiebinger, *Plants and Empire: Colonial Bioprospecting in the Atlantic Wor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⁷⁹ 앞서 언급된 Jun의 연구 및 Peter Duus,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⁸⁰ 일본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본의 조선 경영 실패는 일본의 대만 경영, 심지어 남양군도에 대한 경영과 비교할 때 특히 잘 드러난다. 이 식민지 경영의 실패는 대만에서처럼 통치의 이익을 분배하여 ‘민심’을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통치의 간접 비용은 더욱 높이는 한편, 이에 따른 재정 의존은 조선 경영에 대한 일본 내 세력의 개입을 불러 비교율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비교는 문명기, “대만, 조선총독부의 초기 재정 비교연구: ‘식민제국’ 일본의 식민지 통치역량과 관련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민지 시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그 역동성의 크고 작은 요소들을 살피는 데 더욱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흥미할 점은 조·일 연구자들이 생산한 두 가지 향토 식물 연구는 식민지 지배 관계 속에 생산된 조선적 조선 식물 연구의 식민지적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지만, 또한 일본적 조선 식물 연구의 한계도 뚜렷이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식민 현지 연구자들의 지지조차 얻지 못했던 나카이의 성과도 그렇지만, 나카이에 대해 ‘향토적’ 연구로 특화하고자 하면서도 일본 문명화 사명의 권위를 대변하는 나카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현지 일본인들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땅이나 문화와 충분한 융화를 이루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주어진 특권에 안주했던 일본인 연구자들은 조선과 일본의 유사성에 기대어 나카이의 조선 식물 연구에 일본적 색채를 더하는 데 그치는 ‘쉬운’ 향토화에 머물고 말았다. 이에 반해 피지배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피하기 힘들었던 조선인들이 오히려 지적 자극을 얻기도 했다. 제국의 과학 활동을 수용하는 일이 ‘천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은 일본의 성과를 추인하는 대신 지식 활동의 독자성을 도모하게 했고 덕분에 이들은 나카이의 성과를 그대로 답습했던 학습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약하나마 그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만들어 냈고, 조선 산의 조립, 조선의 문화, 조선의 전통과 같은 지역적 관심과 연결 지은 향토화를 이루었다. 식민지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근대 학문에 식민성을 극복할 씨앗도 있었던 셈이다.

(투고: 2015년 3월 23일, 심사 및 게재 확정: 2015년 4월 14일)

44권 (2009), 91-113쪽; 문명기, “식민지 ‘문명화’의 격차와 그 함의”, 『한국학연구』 46권 (2013), 33-69쪽을 볼 것. 일본 제국주의 경영에 대한 일반론은 Ramon H. M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95-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의 논의들이 여전히 참고할 만하다.

Politics of Neutrality for Colonial Collaboration in Science: Political Regionalization of Botanical Research in Colonial Korea

LEE Jung (Academia Sinica, Taiwan)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unique advance of botanical research in colonial Korea by examining the collective scientific practices by both Japanese and Korean researchers within colonial Korea, mostly obscure natural history teachers in colonial schools. Two kinds of politics embedded in their so-called regionalized botanical research explains the success of these researchers with modest backgrounds. In expanding their modest chance to become full-fledged researchers, they overcame the strong ethnic division in the most contested colony of Japan and created common research organizations to promote their cause. They also created a seemingly common cause of regionalized studies of Korean plants while distancing themselves from the universalized study conducted in the Japanese center. Their “cooperative” regionalization was thus a grand political move that aimed to create a regional foundation for their scientific research, a task neglected by the colonial power that promised the “civilizing mission” for the colony. However, the harmony between Japanese and Korean researchers was limited to their common cause of making a research foundation in colonial Korea. Instead of producing a cooperative regionalized study of Korean plants, they produced two regional studies of plants reflecting their contending political positions, a study to Japanize Korea by Japanese researchers and a study to display at least their intellectual independence from Japan by the Koreans. This paper points out that it was the complex intermingling of these two politics surrounding regionalized studies that made botany a successful scientific field, not any intention or policy by the colonial government.

Keywords. colonial science/botany, natural history, professionalization of science, neutrality of science, colonial modernity